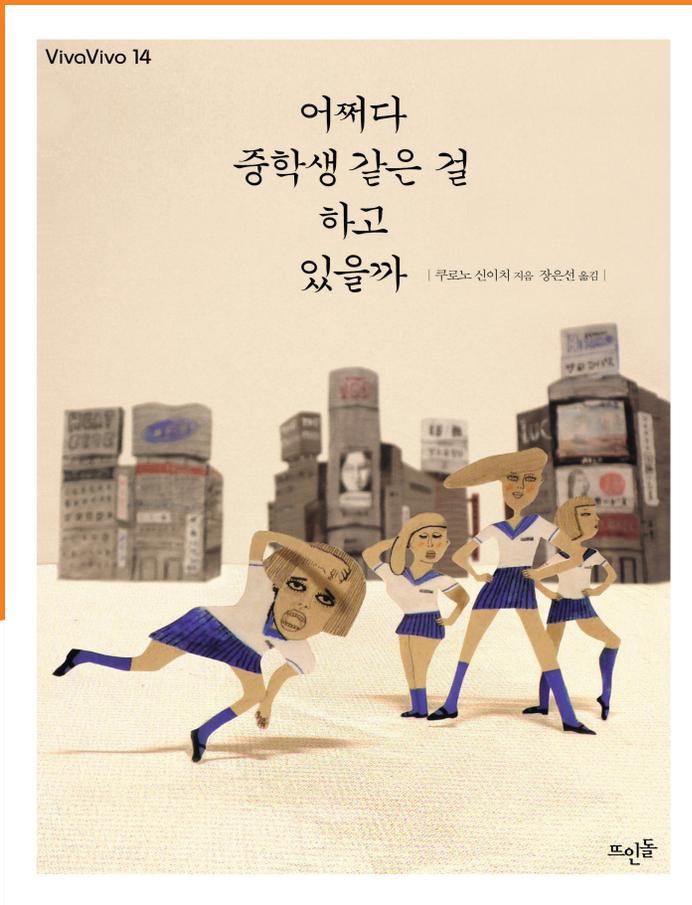


청소년 독서 수업 지도안 교사용

청소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성 : 오요한(정신여자중학교 교사)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쿠로노 신이치 지음 | 장은선 옮김

주제어 : 사춘기, 성장, 친구 관계

서울시교육청 추천도서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꿈꾸는도서관 추천도서

프인돌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독서 전 독서 준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학생들의 관심사 파악하기 2. 책 표지를 바탕으로 책 내용 예측하기
독서 중 토론과 논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서 일지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상적인 장면이나 구절 선정하기 -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으며 읽기 2. 책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의 의미 생각하기 - 중학생의 화장에 대한 원탁 토론 시행하기 3. 역할극을 통한 감정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상황을 재구성해 역할극 하기 - 소설 속 인물에게 편지 쓰기
독서 후 책 활용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NS를 활용해 책 소개하기

관련 국어과 교육과정

- 듣기, 말하기 : 토론을 할 때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 읽기 :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 문학 :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 책 소개 ●

소심한 중2 소녀의 좌충우돌 사생활

자칭 성실하고 착한 중학생 스미레는 지금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도, 친구 사귀는 일도 너무 힘들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겨우 1년 차이인데! 1학년은 어찌어찌 버텼지만, 친구 하나 없이 시작한 중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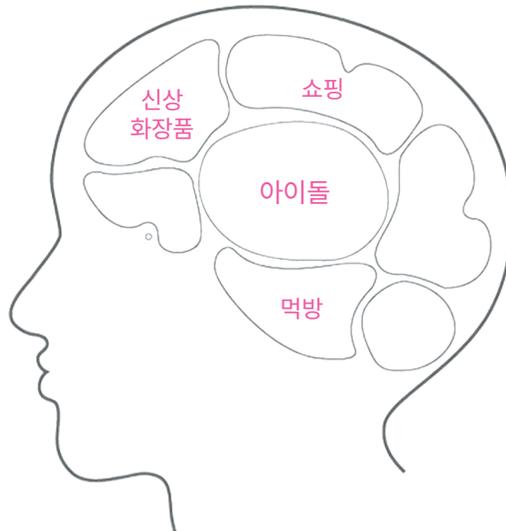
어른 놀이 해 대는 날라리 그룹에 끼고 싶지도, 범생이로 살고 싶지도 않다.

소심한 열네 살 소녀가 중학교 교실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

▶ 국어 교과_ 독서 단원 연계 : 책 미리 보기

책 내용을 예측해 보고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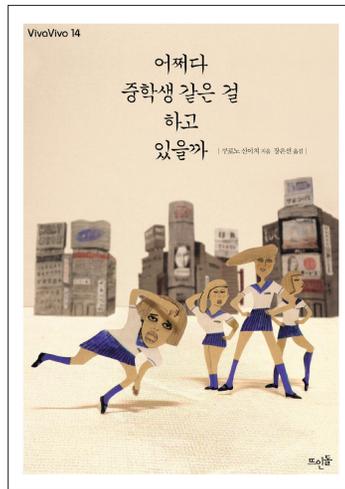
1. 다음 '뇌 구조' 그림을 바탕으로 '중학생'인 자신의 관심 분야와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2. 뇌 구조도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고, 우리 반 친구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보이는 카테고리를 그 이유와 함께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순위	카테고리	이유
1	아이돌	세상엔 멋있는 오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	쇼핑	세상엔 꼭 사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	먹방	세상엔 맛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4	화장품	세상엔 예쁜 화장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5		

3. 이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보고, 책 속 중학생들의 관심사와 책의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책 속 중학생들의 관심사는 (**화장과 옷차림인 것**) 같아.

왜냐하면 (**뒤표지에 거울과 립스틱, 구두 등이 그려져 있고, 교복 치마를 짧게 줄여 입은 여학생들이 보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책에는 (**주인공의 불안한 학교생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교복을 입고 불안한 표정으로 까치발로 넘어질 듯 중심을 잡고 있는 앞표지 여학생의 모습과 뒤표지의 소개 내용**) 때문이야.

▶ 국어 교과_ 독서 단원 연계 : 책을 즐기며

- 궁금한 내용 정리하며 읽기
- 공감하는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정리하며 읽기
- 자신의 생각을 쓰며 읽기

1.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며 책을 읽어 봅시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겨우 사흘 지났는데... 완전 우울하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 가기 싫다. 가기 싫은 이유를 꼭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예를 들면 왕따라든지), 어느 날 엄청난 불행이 닥쳐와서 지옥 같은 곳으로 끝도 없이 추락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면 나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대체 왜 학교 같은 제도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왜 비슷한 나이라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아이들을 같은 장소에 몰아넣고 격리하는 겁니까? 모두 완전히 다른 인간들인데, 어째서 똑같은 일을 시키는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살려 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하지만 내 단말마도 헛되어 스러지고, 나는 사람들의 냉대 속에 곧 숨이 끊어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길 테지.

‘안녕, 아빠 엄마. 낱아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기왕이면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사치스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중1 때부터 왠지 불행해질 것 같다고 예감했지만, 진짜로 ‘굉장한 불행’이 닥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완전히 다르다. 당연한 소리인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이 될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된 순간 마치 다른 차원에 내던져진 것 같았다. 양쪽 다 딱 한 살 더 먹은 것뿐인데.

교복, 묘하게 높아진 철봉, 과목별로 바뀌는 선생님. 초등학교 땐 없었던 것들에 익숙해 지느라 시간을 잡아먹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시 제일 큰 차이는 반 아이들이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극히 평온했다. 왕따 따위는 구경도 못해 봤다. 우리 6학년 1반 아이들은 모두 평화주의자였다. 졸업할 때는 반 친구들 전부 목놓아 울었다. 이토록 완벽한 친구들을 강제로 갈라놓는 교육제도의 잔인함을 원망하면서 평평 울었던 것 같다.

하지만 중학교에 와 보니, 역시나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녀석들은 그야말로 야만인이었던 것이다. 그 아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들은(내 입으로 말하자니 좀 부끄럽지만) 레벨이 달랐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지만 모두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 같아서 인상적이야.

나도 중학교에 입학하고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 달랐던 게 적응하기 어려웠어.

2. 책을 읽으면서 떠올린 자신의 경험을 독서 일지에 정리해 봅시다.

독서 일지(예시)

읽은 날짜	책 제목	작가	읽은 쪽수
20〇〇.〇〇.〇〇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쿠로노 신이치	~
책을 읽으며 정리한 내용			
인상적인 장면 또는 구절	왜 비슷한 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을 같은 장소에 몰아넣고 격리하는 겁니까? 모두 완전히 다른 인간들인데, 어쩌서 똑같은 일을 시키는가 말이에요.		
책 속의 내용과 비슷한 나의 경험	나도 중학교에 입학하고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 달랐던 게 적응하기 어려웠어. 게다가 우리 학교는 교과 교실제를 운영해서 수업시간마다 다른 교실로 이동하느라 학기 초에 정말 힘들었지.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스미레는 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았을까? 스미레와 준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 국어 교과_ 독서 단원 연계 : 책을 즐기며

- 의견의 상호 교환
- 토론의 본질과 원리 이해하기
- 비판적,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 헤어스타일 다음 프로젝트는 화장이다. 산발에 가까운 눈썹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 가위를 들고 찢끔찢끔 잘랐다. 송충이 같던 눈썹이 깔끔한 분재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왜 좀 더 빨리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깊이 후회했다.

필요 없는 털은 뽑고 빈 부분은 펜슬로 채웠다. 그리고 미미한 눈꺼풀 위에는 아이라이너로 가볍게 선을 그려 줬다.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의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중략)

나는 예뻐지겠다는 의욕에 불타올랐다. 우선 기본부터 다져야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시도했다. 깨끗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밤에 팩을 하기 시작했다. 모공 팩과 수분 팩을 번갈아 하고 있다. 그러고는 우유로 마무리한다. 얼굴로 끝나선 안 된다. 몸에도 촉촉하게 바디 로션을 발랐다. 태양을 피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도 발랐다. 학교에 가기 전에는 화이트닝 세럼을 발랐다. 미백이 대세 아니겠는가.

중학생 주제에 너무 심하다고? 하지만 다들 이렇다. 아오이랑 유이, 카나에도 전부 하고 있다. 미모란 하루 가뿐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냥 예뻐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다. 예쁜 아이는 누구나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나도 노력해야 한다.

나) ○○○학생복이 756명의 청소년(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화장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하는 청소년은 58.5%(442명), 화장하지 않는 청소년은 41.5%(314명)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은 화장하는 이유에 대해 ‘자기만족을 위해서(31.1%)’, ‘외모, 피부 등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해(22.6%)’, ‘민낯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14.8%)’, ‘친구들이 다 하니깐(5.6%)’ 등이라고 밝혔다.

화장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중학교 때(51.8%)가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도 3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앙일보(2019.11.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25&aid=0002954975>

① 가)에서 스미레가 화장을 하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아오이네 그룹에 끼려면 그 아이들과 비슷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② 나)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 처음으로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해본 적이 있거나 화장을 하고 싶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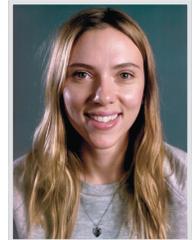
아이들이 전부 다 화장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못나 보이기 때문이다.

③ 아래 자료를 읽고, 화장의 의미와 화장을 하는 까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불완전한 나를 가리려고 화장을 하고 다른 아이들이 다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건 어쩐지 맘에 들지 않는다. 나를 더 나답게 하려고 웃을 입고 화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만 신경 쓰면서 찾는 아름다움은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의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화장 없이도 거울을 볼 수 있고, 불완전한 자신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세상이 원하는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 스칼렛 요한슨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8094732



나) 화장에 대한 관심은 외모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는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화장 경험을 통해 외모를 변화시키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각종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이 화장을 하는 것은 학생신분에 어긋나며 그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다움의 기준에 저항하는 행위로 취급되어 왔으며 기성세대들은 청소년을 학업과 규제로 경계를 짓고 그 가치기준에 따라 ‘범생이’, ‘중간’, ‘날나리’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소위 노는 아이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온 과거와 달리 성적에 관계없이 외모와 피부 관리에 신경 쓰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화장은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힌 그들의 문화로 봐야 할 시기인 것이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청소년 화장에 대한 불편한 시각과 청소년들의 화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큰 만큼 서로 갈등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학교는 화장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지만 청소년의 학교 밖 화장행동까지는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 배은희(2015), 청소년 화장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8

2. 1번 활동과 다음의 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중학생의 화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원탁 토론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원탁 토론 진행 방법>

- ① 1차 발언 : 참가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밝힙니다. 입론의 과정의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밝힙니다. 입론의 과정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반박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② 2차 발언 : 참가자들이 서로의 생각에 반박하거나 질문하는 등 반론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질문을 받아도 즉시 발언하지 않고, 자신의 차례가 오면 발언합니다.
- ③ 3차 발언 : 토론을 통해 내용을 발전시키고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합니다.
- ④ 방청객 질의 및 숙의 시간 : 방청석에서 청중의 질문을 받습니다.
- ⑤ 4차 발언 : 최종 마무리 발언(소감 제시 등)을 합니다.

- ① ‘중학생의 화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원탁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토론자 1	<p>두발자유화도 된 마당에 화장을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그 정도 자유도 없다는 건 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p>
토론자 2	<p>개인이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 알기알부할 수는 없지만 화장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뺏기고 공부하는 데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생의 신분이라면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토론자 3	<p>청소년들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화장품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화장품을 고를 때 신중해야 하고 화장품 회사들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성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 ② 원탁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가장 잘 이야기한 토론자를 뽑아 보고, 그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 우리 반 토론왕 : **토론자 2번을 토론왕으로 꼽고 싶습니다.**

- 토론왕으로 선정한 이유 : **어떤 의견이든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춘 의견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독서중 책 속으로 : 역할극과 편지 쓰기

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 기말시험도 끝나고 봄방학이 코앞으로 닥쳐온 어느 날이었다. 제 아무리 돌덩이라도 울고 싶어질 만큼 심한 일이 일어났다.

학교에 갔더니 책상이 없었다. 의자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내 책상 같아 보이는 건 교실 어디에도 없었다. 반 아이들은 모두 나를 무시한 채 떠돌고 있었다.

가방을 멘 채로 교실을 나왔다. 복도, 계단 아래, 다른 반도 훑쳐보았는데 남은 책상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일단 교실로 돌아왔더니 순간 모든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금방 눈을 돌리고는 떠돌고 노는 척하기 시작했다.

이건 도저히 돌덩이인 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내 책상 어딴어?”

몇 달 만에 교실에서 목소리를 냈다. 아이들은 당연히 나 같은 건 무시한 채 떠돌고 있었다.

“내 책상 어딴냐니까! 누가 숨긴 거야?”

찢어지는 소리를 냈더니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침묵이 계속되자 카나에가 지친 듯 대답했다.

“시끄러. 그만 거 몰라.”

나) 지식채널e ‘나는 그곳에 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60Oh_uzFw&list=PLXb6ZjInNtP13HPbIBhkalOmihT_q_hE2&index=13

① 친구들과 함께 가)를 연기해 보고, 소설 속 ‘나(스미레)’의 처지와 상황을 경험해 봅시다.

② 나)의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가)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의 책상이 없어졌는데도 아이들이 눈을 돌리고 방관하는 모습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친구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모습은 큰 문제다.

③ ②에서 살펴본 가)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가)의 내용을 친구들과 새롭게 재구성하고 연기해 봅시다.

스미레는 참지 못하고 카나에를 데리고 나온다. 카나에를 추궁한 후 책상을 찾아오도록 하고 카나에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다음에 나타난 준의 행동을 ‘나(스미레)’의 입장에서 평가해 보고, 준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 봅시다.

내 책상과 의자가 1학년 남자 화장실 안에 있었다. 책상 위에 뭐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 큰 글자여서 복도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눈에 힘을 주고 읽었다.

‘너한테 자리 같은 건 필요 없어. 빨리 퇴학당해 버려. 너 따위 질색이야.’

머릿속에 무거운 커튼이 드리워졌다. 순간 의식을 잃을 뻔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걸까?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된 거야?

“야, 비켜!”

쓰러질 것 같은 순간, 그 목소리가 나를 일깨웠다. 어느새 내 옆에 준이 서 있었다. 준은 무서운 얼굴로 1학년들을 쳐다보더니 성큼성큼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책상에 붙은 종이를 뜯어냈다. 그리고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러더니 책상과 의자를 들고 화장실을 나왔다.

준과 나 둘이서 책상을 옮겼다. 계단을 내려가 2층 교실 앞에 왔을 때 조회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우리가 책상을 들고 교실로 들어가자 왁자지껄 시끄럽던 교실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우리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책상과 의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준이 교실 안을 빙그르르 돌아보자, 다들 잘못된 사람처럼 눈을 피했다.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낸 준은, 놀랍게도 그것을 아오이 쪽으로 힘껏 던졌다.

아오이와 거기 함께 있던 유이와 카나에는 분노에 찬 준의 표정에 압도당한 채 눈길을 피했다.

준에게

준, 안녕!

사는 게 참 쉽지 않고 오늘은 더더욱 더 어려웠어.

그래서 죽은 듯이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나는 다시 살아난 것도 같아.

책상 찾아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 학교생활이 더 나아지란 법은 없겠지만 조금은 안심이 됐어.

학교에서 보자!

스미레가

독서후 SNS를 활용한 책 소개

1. 책을 다 읽고 난 후 자신의 감상을 SNS를 활용하여 표현해 봅시다.

① 책을 읽고 난 후의 감상을 아래 예시처럼 정리해 봅시다.

한 줄 평 소개	교실 부적응자이자 중2병에 걸린 한 소녀의 좌충우돌 성장기 (★★★★★)
인상적인 한 구절	노력해도 잘 안 될 때는 지나치게 고민하면 안 된다. 좋아하는 간식이나 따뜻한 차라도 들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암전히 기다리는 편이 낫다. 폭풍우는 금방 지나갈 테니까. (p.185)
책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	힘들어하는 중학생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사가 담긴 노래를 함께 소개하여 흥미를 불러일으켜야겠어.

② ‘중학생의 화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원탁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 나의 한 줄 평 교실 부적응자이자 중2병에 걸린 한 소녀의 좌충우돌 성장기(★★★★★)
- 인상적인 부분 노력해도 잘 안 될 때는 지나치게 고민하면 안 된다. 좋아하는 간식이나 따뜻한 차라도 들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암전히 기다리는 편이 낫다. 폭풍우는 금방 지나갈 테니까.
- 책 관련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의 매체 자료

Bravo my life - 봄여름가을겨울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를 읽고

공감하기 댓글달기 퍼가기

#사춘기 #중2병 #어쩌다_중학생_같은_걸_하고_있을까

③ 친구들과 서로 SNS 감상문을 공유해 보고 댓글을 통해 서로의 감상문을 평가해 봅시다.

책 한 권을 보는 다양한 시각, 즉 독서력과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어린이책사랑모임(어사모) 회원사와 어린이 책 전문출판사들이 모여 1년에 2번, 대략 60종의 독서 지도안을 만듭니다. 독서 지도안은 아이들 책을 가장 잘 아는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가 추천한 도서를 토대로 장르별로 선별해 만든 것입니다. 독서토론논술 지도안으로 독서 활동을 하면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거나 간추리는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 명의 독서 교육 전문가가 독후 활동 주제망으로 핵심 단어를 뽑은 뒤, ‘독후 활동 시작하기 → 독후 활동 주제 1 → 독후 활동 주제 2 → 독후 활동 주제 3’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을 제시합니다. 이 독후 활동 단계를 경험하면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작품을 통해 생각하고, 작품에는 없는 새로운 독후 활동을 스스로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각의 독서 지도안을 만나면서 아이들은 독서력과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300편의 독서 지도안 중에 좋은 책을 골라 2018년 국어 교과서에 새롭게 신설된 『한 학기 한 책 읽기』 독서 수업 지도안(교사용)을 만들었습니다. 독서 수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_어린이책사랑모임 & 어린이책 전문출판사

청소년을 위한 풍부한 어휘력, 생각하는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다양한 책

no	대상	출판사	제목	글	그림	번역
1	청소년	블랙홀	골드피쉬 보이	리사 톰슨		양윤선
2	청소년	초록서재	독립운동가가 된 고딩	이진미		
3	청소년	마음이음	드림 셰프	이송현		
4	청소년	중앙출판사	모해를 찾아라	안수자	이명애	
5	청소년	서해문집	미스 손탁	정명섭		
6	청소년	미래인	비이로그 조작사건 (청소년결작선52)	팀콜린스		김영아
7	청소년	크레용하우스	서뱀이 알려주는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직업 이야기	서지원	홍자혜	
8	청소년	도서출판 다림	시간을 걷는 소년	이순원		
9	청소년	도서출판 봄별	아름다운 번역자들	조이 크리스테일		손성화
10	청소년	뜨인돌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쿠로노 신이치		장은선
11	청소년	마음이음	오늘은 무슨 맛	정은숙 외 5인		
12	청소년	단비청소년	우리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창신강		주수련
13	청소년	천개의바람	울프 와일더: 늑대와 달리는 소녀	캐서린 런델		백현주
14	청소년	뜨인돌	처음엔 사소했던 일	왕수편		조윤진
15	청소년	스폰북	클라라의 전쟁	캐시 케이서	황인호	김시경
16	청소년	이마주	푸른개 장발	황선미		

뜨인돌

www.ddstone.com

뜨인돌출판(주)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37-9

전화 (02)337-5252 | 팩스 (031)947-5868

뜨인돌 블로그 blog.naver.com/ddstone1994

뜨인돌 페이스북 www.facebook.com/ddstone1994

노빈손 www.nobinson.com